

# 종교사회학자가 본 한국교회

정 재 식

(연세대학교 교수/사회학)

사회학자들은 가족, 종교, 교육과 같은 사회제도가 왜 존재하는가, 즉 어느 인간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가족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사회안에서의 종교의 기능은 무엇인가? 종교는 사회학적으로 반드시 이로운 것이라고만 볼 수 있는가? 基督教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구실을 해 왔으며, 어떻게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또한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이롭지 못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측면을 사회학에서는 「기능주의적인 시각」이라고 부른다. 이와 대조되는 시각은 갈등론적 시각이라 불리우는데, 여기서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 계급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어떻게 현재의 사회상황이 바뀌는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우리가 사회를 보는 시각과 같이 한국 교회도 여러 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의 기독교의 기능을 살펴보려고 한다. 근대화란 발전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그 보다 뒤진 사회가 점점 뒤따라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문물이 확산되고 서양화되어 가는 것, 과학기술의 확장, 전통적 신분제도가 깨지면서 새로운 평등이 생기는 것,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등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대두, 그리고 대가족의 붕괴에 따른 핵가족의 혁명 등을 모두 근대화의 변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서기 1500년대에 서양에서는 이런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18세기의 계몽운동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해양국가로서 해외제국주의적인 영토확장과 통상을 통한 경제팽창에 급급했던 서양이 통상을 강요하며 동양에 진출하게 된 것은 19세기의 아편전쟁 이후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즉 1853년에 쇄국정책을 고수해 오던 도쿠가와 바쿠후 일본정부가 미국에 강요 당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며, 1860년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함대가 천하의 중심인 북경을 함락하여 오랫동안 유교 중심의 세계에서 바깥 세상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사람들에게 갑작 놀랄

만한 세계관의 변혁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태평양 해로부터 뚝 떨어져 있는 까닭에 동양 3국 중에서 서양과의 접촉이 가장 늦어지게 되었다. 1871년에 가서야 서양에 먼저 얻어맞고 문을 열었던 일본에게 강요되어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국교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1882년 이후의 일이다. 그런데 한·미수교 100년이 된 지금 동양 3국 중에서 미국의 영향을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받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역사의 아이러니성을 깨닫게 된다.

종교문화적인 측면을 주목해 볼 때, 16세기에 이미 서양의 천주교 신부들을 통하여 천주교와 접촉했던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역시 한국은 100여년 뒤늦게 천주교와 접하게 된다. 18세기에 중국에 사신으로 왕래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서양학문과 역법, 천주교의 교리에 관한 책들이 점차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때 조선 사람들은 천주교와 서양문화를 구분하지 않고 서학이라 불렀다. 천주교 신부 마테오리치가 쓴 「천주실의」같은 글이 유교적인 말로 소개되었다.

처음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지식인들이 서학 자체가 지닌 특징 때문에 서학에 끌리게 된 것인지, 아니면 서학이 전파되었을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과 문화의 정체성 때문에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찾기 위한 돌파구로서 천주교를 택했는지 확실치 않다. 아마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획일적이고도 답답한 주자학에 염증을 느끼고, 또한 정신적으로 탄압을 받아 빛을 보지 못했던 남인들, 젊은 패기가 있고 지적인 것에 호기심을 가졌던 청년들이 정신적인 돌파구를 서학에서 찾게 되었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천주교가 하나의 이단에 불과하다고 간주되어서 도외시되었다. 1791년 윤지충과 권상연이 신주를 받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신유박해 이후로 천주교는 아비나 임금도 모르는 사학이며 인륜을 파괴하고 국가의 도덕적인 기반을 부정하므로써, 사람들을 동물적인 상황으로 전락하게 한다는 규정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척사정책이 수립되었으며, 그후 18년 이내에 신유사옥으로 당시 서학을 간접적으로 비호하던 남인의 시파가 몰락하고 벽파가 등장하여 시파의 재진출을 봉쇄키 위해 천주교 탄압을 감행하였다.

이보다 불행했던 사건은 청인 신부 주문모의 체포이다. 그리고 황 사영이 제천에서 바티칸 교황에게 보내는 비단에 만자가 넘는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불관서 함대가 한국에 와서 천주교를 탄압하는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한국에 천주교 신교의 자유를 보장해서 천주교가 확장케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천주쟁이들은 나라를 좀 먹고 국가의 안보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 하여 위협세력으로 간주하였다.

1846년, 1847년, 1866년에 서양선의 출몰사건이 있게 되며, 이런 침입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천주교세력과 서양세력이 같은 것이라며 의심하게 된다. 또한 1866년에는 대원군 집권하의 유명한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며, 매번의 박해때마다 정부에서 반포하는 반교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천주교는 여러 잡신들을 믿고 조상 숭배를 철폐하기 때문에 애비를 모르며, 법황을 따르기 때문에 임금도 모른다. 많은 남녀가 같이 모여 예배를 보기 때문에 가족윤리가 파괴된다.

이러한 입장은 1877년에 정조가 밝혔던 숭정학위칙사 즉, 정학을 숭배하게 되면 책을 하게 된다는 논리로써 조선의 천주교 배척정책을 특징지었다. 그런데 한국의 유학자들과 위정자들, 지식인들은 천주교를 통해서 서양을 보게되며, 서양의 문학적 특징—통색과 통화의 가치—을 보게 되었다. 통색은 서양신부들이 독신으로 지내며 가족제도의 남녀윤리를 파괴하는 것이고, 남녀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보기 때문에, 그들을 연애하는 자들이라 여겨 통색한다고 규탄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양문화 전체를 규탄하였다.

1885년 개신교의 운동이 퍼지면서부터 역시 탄압을 받게 되었다. 1876년 한일수교조약때에 유학자 최 익현은 왜양일치를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수교로 인해 사학이 번성하게 됨을 들어 반대하였으며, 1882년 신 섭의는 개신교가 들어오면, 나라의 풍기가 무너지고 나라가 몰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선교사는 선교를 하지 않고 문화사업이나 의료봉사를 하겠다는 변명을 늘어 놓았다.

1882년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게되면서 부터 서양 각국과 국제관계를 맺게 되며, 이로 인해 초기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당시의 시대적인 조류는 서양화 즉 근대화를 따르면 나라가 부강해 진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조류를 타고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특히 박 영효, 서 광범, 유 길준, 김 옥균, 윤 치호 등은 서양이 부강한 것은 그 근간에 기독교 사상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미국이란 세력과 동일시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은 멀리 떨어져있는 조선에 대해 영토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갖질 않았다. 일본,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은 아편전쟁의 쓴맛을 보았고, 일본도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질 못했기 때문에 그들 나라에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었다.

해방이 되면서 기독교의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했을 때,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의 기독교는 개화세력과 민중운동과 결합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요청에 의해 성장하게 되었다. 사실 갑신정변과 관계되었던 선구자들이 기독교에 동정적이었고, 또한 이 승만, 안창호, 윤치호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5백여년 동안 이조 사회를 이끌어오던 유교는 이기철학의 공리공담과 껍데기만 남은 예의범절만 떠들고 당쟁에 휩쓸려서 그 본래의 정신을 잃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를 정신적으로 끌고나갈 정신적 조류가 없다는 안타까움을 위정척사의 슬로건에서도 읽을 수 있다. 동학의 창건자였던 최제우도 1860년대에 접어들 무렵, 유교, 불교, 도교는 정도가 다하여서 정신적으로 파산되었다고 고백한다. 당시 미신이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감록의 예언에 매혹되고 더러는 천주교를 찾고있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믿고 의지할 바를 찾고 있었던 정신적인 공백상태를 엿볼 수 있다. 기독교는 이런 정신적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교회사적으로 볼때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5년의 노일전쟁의 참화속에서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되었으며, 그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나라가 망하면서 어둡고 괴로웠던 시기에, 히브리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던 모세의 영웅적인 설화는 기독교인들에게 정신적인 힘과 희망이 되었다.

이처럼 기독교는 우리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독립과 자유의 꿈을 주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신탁통치의 도구로 여겼던 제3세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게 되었다. 3.1 운동의 지도세력으로 기독교가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개신교가 한국의 근대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독교가 한국교회에서 새로운 인간관과 사회관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중요시해야 한다. 유교의 전통적인 신분구조에 역행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기독교의 인간관은 혁명적인 것이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자기가 태어난 집안의 벽을 깨치고 남녀가 한자리에서 예배보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사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문의 '社'는 혈연과 지연중심에서, 조상의 귀신이 묻혀 있는 곳이 '社'이며, 그 곳을 중심으로 모인 '솔'이다. 영어로는 Community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혈연, 지연중심의 공동체는 현대에 들어와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현대의 공리적인 인간관계를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會社라고 부를 수 있다. 회사는 독일어로 Gesellschaft, 영어로는 Association인데, 이것이 현대사회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이 현대의 Association 개념을 우리에게 가장 빨리 소개해 준 것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회사와는 달리 잘

은 신앙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사랑과 희망과 믿음으로 얽혀진 공동체이다. 이를 자발적인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서양에서도 종교개혁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자연적인 혈연과 지연을 초월하여 신앙과 자유로 뭉쳐진 교회안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은 시민사회와 시민운리의 원칙이다.

1885년 Mary Scranton 여사가 정부관리의 소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남존여비가 엄격했던 당시 부녀자들에게 동등한 권리로써 교육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다. 그래서 윤 치호는 기독교가 행한 한국사회에서의 가장 위대한 일을 여성해방이라고 평했다. 오랫동안 쌓였던 축첩·조혼 등을 반대하고 이해와 협동으로 맺어진 가정 생활의 구현은 기독교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제헌국회때만 해도 반축첩 법안을 제출한 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출신의 의원들이었다.

1891년에 한국 장로교회는 성서적 신앙을 강조하고 서민과 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립을 강조하는 네비우스의 방법을 채택하여 한국교회가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발전의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 한국의 현대적 조직은 군대, 기업체, 대학이라 할 수 있지만, 속회, 당회, 총회로 이어지는 중앙적 조직체는 교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같은 민주적이고도 자발적인 단체가 많아져야 한다.

알렌박사가 갑신정변에서 부상당했던 민 영익공을 치료 해 주면서 지배층과 친분을 맺고 의료를 통한 선교사업을 시작했다. 1895년에 언더우드와 새문안교회 교인들과 합동으로 콜레라 진료에 힘썼다. 그후 세브란스병원이 생겼으며, 당시 전염병이 돌던 미신을 섬기고 푸닥거리를 행하던 시대에, 교회는 의료봉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과학기술을 보급해 주었다. 근대적 의미의 사회사업은 병원과 교아사업을 통해서 교회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의 사회 미덕인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교회에서 좀더 조직적인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배재, 이화, 연희 등의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근대교육의 사학의 운동이 근대화를 촉진시켰으며, 그동안 천시되었던 한글을 보급하고, 체육과 음악을 선교사나 교회가 보급하게 되었다.

한편 기독교사상이라는 씨앗이 한국의 토양에 뿌려지면서 한국적인 기독교로 변모해 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종교사회학이나 지식사회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 볼 때 유럽은 봉건제도라는 독특한 사회제도가 있었고, 미국은 개척국가로서 많은 이민들로 구성된 이민교회가 있었고, 흑인교회도 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유럽교회가 텅 비어 있는데 비해 미국의 경우 비록 주류교회의 교인수는 늘지

않지만 보수주의적인 교회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에 비해 미국의 교회는 대성장되는가? 전통을 고집하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 교회는 변동하는 시대적 사조에 적응력이 강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의 전통에서 초기 선교사들은 대개 보수적인 청교도들로서 금주, 금연을 강조하고 주일과 율법을 엄수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정치와 종교를 구별하고 오로지 복음증거만을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철학적 사고보다는 감정적 표현에 쉽게 동화되었던 한국사람들과 잘 통할 수 있게 되었다. 수백년 동안 금욕적 주자학의 윤리와 예의에 매여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에게 철학이나 신학, 이성과 개인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사회 윤리는 통할리가 없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소아적인 단순한 신앙과 위로와 은혜와 평안이었다. 윤리적 교양으로써 세상의 변화를 직시하던 지성인들이 기독교와 호흡을 같이 하여, 근대화에 앞장서고, 많은 대중들은 순수한 신앙의 전통을 세워나갔다. 사실 새벽기도회, 삼일기도회, 구역속회, 주일낮, 저녁예배 등 한국 교회와 같이 모이는 일에 열성을 보이는 교회도 드물 것이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적인 힘이 점화되어 민족운동으로 폭발될 때에는 3.1 운동과 같은 자랑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었지만, 이러한 한국교회의 체질이 잘못 발휘되었을 때에는 지리멸렬적인 교단분과분쟁에 휘말릴 수 밖에 없었다.

17세기 중엽 이조의 당파싸움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현상이었다. 당시 동인에게 눌러지내던 서인이 득세하게 되자, 그 중에서 노론과 소론이 갈라져 그 후 200년 동안은 노론세력이 정치와 사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때에는 자기만 옳고 남의 사상은 그르다는 독선적인 아집이 매우 강했었다.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여기며 나아가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까지도 함께 말살해 버렸다. 사실 자기 혼자만 진리를 알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로 남의 허물을 들추어 내고, 편협과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해방 이후 한국에 교파분열이 한창일 때 여기서 선도적 역할을 하던 자들은 대개 독선적이고 경건하고 열성과 독실함을 자랑하던 자들이었다. 한국 교회에서 경건과 율법주의적인 독실한 헌신과 열성적인 신앙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따뜻한 인간미와 이해와 관용과 용서 같은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독교의 진수는 사랑이며,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R. Niebuhr는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에서 인종, 계급, 지방색, 경제계층 등의 이유로 인해 분과가 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떠난 교회라고 지적하면서, 기독교회의 분열사는 곧 패배의 역사라고까지 하였다. 그리스도안에

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노예나 자유인의 신분구별이 있을 수 없다. 세력다툼, 인종차별, 계급주의 때문에 교리나 신학의 연막을 뿌려 분파하고 지리멸렬하는 현상은 곧 기독교의 정신적인 파산을 뜻한다.

종교사회학자 M. Weber는 인간의 삶의 환경이 곧 그 사람의 종교적 심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자면, 상공업 종사자들은 실용적이며 실리적인 합리주의적 생활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 있어서 주술이나 미신에 따르기 보다는 윤리적이고도 합리적인 신앙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한국민의 종교적 심성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샤머니즘이다. 샤머니즘의 문화에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귀신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재앙을 막기 위해 서낭당과 칠성당에 찾아가서 기도를 올리며 불공을 드린다. 즉 크리스찬들이 새벽기도회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이것의 형태만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의 두드러진 예배의 특징은 통성기도와 감정적인 흥분인데 이는 신들린 무당의 굿과 울부짖음과 다를 바가 없다. 즉 무속바지저고리를 기독교적인 펜츠와 자켓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세상이야 어떻게 되던 간에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공양만하면 된다는 생각이 십일조와 열성있는 헌금만 하면 만사형통하리라는 관념이 되고 말았다.

임 어당은 그의 저서 「My Country and My People」에서 중국인의 사상은 초월적인 성격의 것이 아닌 현실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의 문화와 심성은 중국의 것과 비슷하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인간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곳이 교회이다. 한국의 교회 현실에서 볼때 헌금 몇푼만 있으면 병고치고 만사가 다 잘되는 축복을 받으니, 이보다 더 경제적인 흥정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는 한국의 교역자들이 스스로 직업윤리를 확립시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달아서 자체정비를 시행하는 제 2의 종교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